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70년 '묘법'의 비결

February, 10 2020 | 홍보영 기자

page 1 of 2



박서보, 묘법 No.010721, 캔버스 위 한지에 혼합재료, 130.3×162.2cm(100호), 2001. (사진=케이옥션)

단풍 절정기를 지나 열린 회색빛이 곱게 내려앉은 거울이다. 케이옥션 2월 프리미엄 온라인경매에 나온 박서보 화백의 '묘법 No.010721'이 그런 작품이다.

한국 단색화의 거장이라는 별칭답게 그의 작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빛깔을 낸다. 색깔보다는 빛깔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실제로 그는 단색화를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유약을 발라서 내는 흰색보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색"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서보의 '묘법'으로 대표되는 단색화는 엄연히 서구 미니멀리즘과 구별된다. 모노크롬은 다색주의의 상대적 개념으로 하안색과 검정색으로 특정되지만, 단색화는 흑백의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실제로 단색화는 'Dansaekhwa'라는 영문이름도 존재한다.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묘법' 연작은 한지를 반죽해서 질감을 낸 작품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묘법'도 후기작품으로 캔버스·양지, 유채안료·연필을 중심으로 그려진 전기작과 달리 한지와 수성안료로 이뤄졌다.

한지는 매우 민감한 흡수력을 가진다. 이는 박서보의 작품 세계관에서 중요한 요소다.

작가는 2000년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치유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이 흡인지가 돼서 보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빨아들여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의 그림은 치유를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빛깔뿐만이 아니다. '묘법'은 구도에서도 사람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마법을 부린다.

박서보는 처음엔 손으로 직접 선을 그렸지만 후기에는 도구를 사용해 오차 없는 수직의 선을 구현했다. 균일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선이 안정감 있는 구도를 만들어낸다.

또 대다수 '묘법' 시리즈에서 공통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출품되는 작품도 가운데 부분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비어있다. 박서보는 이 빈 공간을 숨구멍이라고 표현했다. 작가 본인과 관람자 모두 쉬어가는 공간이다. 여백의 미라고 할 수도 있겠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은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라는 타이틀로 대규모 전시를 열었다. 타이틀처럼 그는 수행하는 듯 끊임없이 비워내는 작업을 한다. 표현으로서의 이미지를 단념하며 비워내는 반복행위, 그 행위 자체가 예술인 셈이다. 박 화백 '묘법'에 대해 그의 후배인 이우환은 "이미지를 그리지 않으려는 뼈아픈 저항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서보의 '묘법 No.010721'은 현재 케이옥션 프리미엄 온라인경매에서 응찰할 수 있다. 작품 추정가는 1억6000만~2억3000만원이며, 1억5000만원부터 시작한다. 작품은 케이옥션 신사동 전 시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 프리뷰는 경매를 마감하는 오는 12일까지.

한편, 부산 조현화랑에서도 오는 16일까지 박서보의 화업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진행 중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